



양계업계 뉴스초점

홍보부

산란실용계 생산잠재력 급증

9월경부터 월4백만수대 육박

비교적 안정세를 보여왔던 산란종계 입추가 연초부터 과잉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금년 가을추부터 생산량이 큰 폭으로 증가할 양상을 보임에 따라 산란실용계 업계나 산란종계·부화업계 차원에서 생산조절을 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평균적으로 월 300만수대이면 안정적으로 보고 있으나 9월 이후에는 400만수대에 육박할 생산여력(종계입식 기준)을 갖추어 놓고 있어 염려가 되고 있는데 그간의 흐름으로 볼 때에 일단 병아리가 생산되면 입추가 된다는 등식을 고려할 때 2000년 3월경이면 그만큼 계란 생산량도 증가할 수밖에 없어 불황이 예고되고 있는 셈이다.

종계부화산업발전협의회 해체

종계부화분과위원회 활성화 위해

종계인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임의 단체를 결성하여 눈부신 활동을 했던 종계부화산업발전협의회(이하 종발협)가 지난 14일 온양 그랜드파크호텔에서 회의를 개최한 후 본회 종계부화분과위원회를 활성화시킨다는 차원에서 해체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종발협은 수입개방이 논의되기 시작한 때에 국제경쟁력제고를 이끌어 낸다는 취지로 제도권 밖에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여론조성에 눈부신 활동을 하였다. 그러나 사회 여건의 변화로 본회 종계분과위원회를 통해 여론과 대외활동을 일원화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종발협의 독자적인 활동을 중단·해체하기로 하였다.

산란계 질병 확산으로

4월 난가 강세 유지

산란계 질병이 만연되어 3월 산란사료 생산량이 15만톤을 상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난가는 비교적 강세를 유지한 것으로 분석된다. 곳곳에서 ND로 판명이 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는데 성계의 경우에도 폐사율이 60%에 달하는 곳도 있어 그간 ND의 전형적인 유형에 비추어 해석을 놓고 설왕설래 하고 있다.

산란노계도 난가 상승과 함께 출하량이 감소하여 일부에서는 수당 1,400원선까지 강세를 보여 자칫 5월 농번기에 계란 수요가 감소하면 난가는 약세를 보일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전국계우회연합회 총회 개최

새회장에 본회 장대석회장 선출

지난 7월 전국계우회연합회 정기총회에서 본회 장대석 회장이 전국 계우회연합회 회장으로 선출되어 앞으로 3년간 이끌어가게 되었다.

전국계우회연합회는 각 지역의 계우회(채란)가 참가하는 임의 단체로 난가 고시의 대외 창구역할을 근간으로 하여 채란업계를 대변하고 있는데 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지역 계우회가 가입해 있다. 부회장에는 천강균(애농원, 본회 채란담당 부회장), 심준식(도척농장), 구천석(자훈농장), 김선웅(봉림농장), 박현경(삼화농장)씨가 각각 선출되었으며, 30명의 운영위원은 계우회별 2명으로 선임하기로 하였으며, 또한 회장의 임기도 2년에서 3년으로 하기로 정관을 개정하였다.

위생방역관리 우수종계장 인증

신진농원, 산란종계장으로서는 1호

위생방역관리 우수종계장 인증심의위원회는 지난 6일 경남 김해시 소재 신진농원(대표 손종원)에 대한 위생방역관리 우수종계장 인증심의 결과 추백리를 비롯한 가금티푸스, 만성 호흡기병, 전염성 활막염 등 4종의 검사대상 질병 중 3종 이상의 질병이 음성으로 나타나 1등급 우수종계장으로 인증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로써 신진농원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1등급 위생방역관리 우수종계장으로 인증을 획득한 산란종계 농장의 영예를 안았다.

현재 1등급 우수종계장에는 원종계 1개소, 종계 1개소로 모두 산란종계에 국한되어 있어 모든 종계장의 위생방역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 무단한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월 닭고기 수입량 최고치

3,544톤 반입, 계속 증가 예상

닭고기 수입량이 예상대로 매월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어 육계업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금년 들어 2,344, 1906톤에 이어 3,544톤이 수입되어 전년 동기에 비해 289% 가량 증가를 보였다. 수입되는 닭고기 가격은 도착가 기준 1달러 안팎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1달러 미만은 주로 통다리로 다릿살(Thigh)과 복채(Drum Stick)가 붙은 것이고 1달러가 넘을 때에는 날개와 복채 품목의 수입량이 많을 때인 것으로 밝혀졌다. 통다리는 다릿살과 복채로 나뉘어 복채는 수입가 보다 비싸게, 다릿살은 싸게 유통시키고 있어 국내 닭고기의 가격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다. **양계**